

96.3.29

초등학교교육 학부모참여 활발

급식당번 명예교사등 자연스런 활동 늘어

초등학교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일부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학교」로 초등학교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출입할 기회를 크게 늘린 계기는 급식당번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마다 급식당번으로 지정된 4~10명의 어머니들이 매일 학교를 찾는다. 급식당번은 지정된 날에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점심을 나눠주는 일을 맡는다.

주부인 김영자씨(35·서울 은평구 녹번동)는 『급식당번 때마다 학교를 찾다보니 돈봉투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졌다』며 『학교 출입이 선생님을 만나 아이에 대한 상담을 하고 다른 어머니들과 자녀지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만남의 장이



급식당번을 맡은 어머니들이 학교 식당에서 초등학교생들에게 점심을 나눠주고 있다.

촌지 부담없고 자녀상담도 할수있어 좋아

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맛벌이주부인 김정희씨(34·서울 강남구 개포동)는 『급식당번으로 두달에 세번꼴로 학교에 가는 시간이 쉽지 않아 시간당 1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당번 역할을 대신하게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명예교사로 나서 교사를 대신해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나 국악 탈춤 노래 연극 환경 등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일부 학교

는 방과후 빈교실에 어머니교실을 열어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컴퓨터 서예 동양화 등을 지도하거나 명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있다.

초등학교 1, 2년생은 무거운 책걸상을 옮기고 넓은 교실을 청소하는게 쉽지 않아 학부모들이 청소당번을 정해 자녀의 교실정소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또 녹색어머니회원들은 등교시간에 주위가 산만한 학

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위의 횡단보도나 교문 앞에 배치돼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는 일을 맡는다. 이밖에도 학교 육성회나 어머니회의 회원이 되어 학교를 찾는 학부모도 있다.

창서초등학교 교사인 박미정씨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을 기회가 늘어나면서 어머니의 학교 방문을 치맛바람으로 보던 부정적 시각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는 질 높은 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相哲〉